

碩士學位論文

제주관악의 현대사와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 중심으로 -



濟州大學校 大學院

音樂學科

羅 攄 音

2009年 11月

# 제주관악의 현대사와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 중심으로 -

指導教授 許 大 植

羅 攄 攄

이 論文을 演奏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11月 00日

羅攄攄의 演奏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9年 11月 00日

A Study on the Contemporary History of Jeju  
Wind Music and Development  
- Jeju Provincial Seogwipo Wind Orchestra -

Malg-Eum Na  
(Supervised by professor Dae-Sik Hur)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Music

2009. 11.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Dae-Sik Hur. Prof. of Music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Music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제주관악의 현대사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연구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함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 연구자들의 논문, 연구보고서, 일간지, 세미나 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자료와 정보 등을 바탕으로 제주관악의 현대사를 정리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을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연구 하였다.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관악단인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은 관악의 특성을 살린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권을 신장시켜 줌은 물론 문화와 관광이 접목된 자랑스러운 명물로서 연주단체 운영을 희망하는 전국의 중소도시에도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 하고 있으며, 국내·외 초청공연과 정기 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통하여 제주를 대표하는 관악 전문 연주 단체로서 제주관악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 이 단체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인지도 부족과 홍보 부족이 큰 문제로 나타났다. 아래와 같이 4가지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전 단원의 상임화 이다. 현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은 전체 단원 32.5%가 비상임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임단원과 비상임 단원간의 연습 시간 조율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문 음악단체에서 상임과 비상임 체제로 연주활동을 하는 것은 전문 연주 단체로 활동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전 단원 상임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 져야 한다. 두 번째로 악기편성의 균등화이다. 관악합주에 필요한 기초적인 파트는 반드시 확충되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립관악단의 편성 중 가장 보완 되어야 할 부분은 Clarinet주자, Bassoon주자, 금관악기주자, 타악기주자 편성이 확대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사무국의 도입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은 사무국이 존재 하지 않는다. 사무국이 없는 상황에서 연주회를 개최하고 홍보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연주홍보 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하루

빨리 사무국이 도입되고 행정 전문가가 사무를 담당하여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인지도 확산이다.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은 지자체를 대표하는 전문 음악 단체이다. 그러나 다른 시립교향악단처럼 시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이 지자체소속의 그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임을 알고 있지 못한다. 인지도를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홍보 체제가 잡혀야 한다. 지자체 소속의 전문연주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이 시민들에게 자랑거리이며, 문화콘텐츠로 인식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홍보 체제가 잡혀야 한다. 홈페이지구축, CD 제작, 미디어매체를 통한 홍보 연주, 전국 순회연주, 국내외 전문 관악 연주단체와의 교류연주 등을 들 수 있다.

서귀포시립관악단 에서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이 단체가 명칭만 바뀐 단체가 아닌 독립 단체의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한다.

##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방법	2
II. 본론	3
1. 제주관악의 역사	3
1) 유입배경	3
2) 1950년대~1980년대	4
3) 1981년대~2000년대	5
2.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 관악단의 역사 및 발전방안	8
1)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의 역사 및 현황	8
(1)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의 역사	8
(2)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의 현황	11
2) 발전방안	13
(1) 인지도 확산	13
가.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13
나. 설문지 분석	14
(2) 사무국 도입	22
(3) 상임화	27
(4) 악기편성의 균등화	29

Ⅲ. 결 론 .....	31
참 고 문 헌 .....	32
ABSTRACT .....	36
부 록 .....	38



## < 표 목 차 >

<표 1>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 공연실적 .....	12
<표 2>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	13
<표 3> 성별 .....	14
<표 4> 연령층 .....	14
<표 5> 거주 지역 .....	15
<표 6> 인지도 .....	15
<표 7> '㉠모른다'의 이유 .....	16
<표 8> 알게 된 경위 .....	17
<표 9> 연주회 관람여부 .....	17
<표 10> '㉠없다.' 선택이유 .....	18
<표 11> 연주회 관람 횟수 .....	19
<표 12> 연주관람동기 .....	19
<표 13> 홍보프로그램 열람여부 .....	20
<표 14> 서울시향의 조직도 .....	22
<표 15>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 수 현황 .....	23
<표 16> 대전시향 조직도 .....	23
<표 17> 대전시향 사무국 직원 수 현황 .....	23
<표 18> 마산시향 조직도 .....	24
<표 19> 마산시향 사무국 직원 수 현황 .....	24
<표 20> 마산시립예술단 사무국 조직별 업무내용 .....	25
<표 21>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교향악단의 조직도 .....	26
<표 22> 제주시향 사무국 직원 수 현황 .....	26
<표 23>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 단원 현황 .....	27
<표 24> 관악 연주단체 편성 현황 .....	29

< 그림 목 차 >

<그림 1> 오끼나와 타임즈, 2000년 3월 18일 ..... 10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바다로 둘러싸여 고립된 섬인 제주도는 중앙의 문화권에서 가장 원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예로부터 정객들의 유배지로 인식되어 왔고,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정보의 고립 등으로 제주도내의 문화적 활동이 제대로 조명 되지 못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195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최근의 관악의 역사를 정리하여 제주도에서도 활발한 문화적 활동이 있었음을 조명하려고 한다.

그리고 1995년도부터 제주도 관악음악계에 가장 큰 축제인 제주국제관악제가 개최 되는 등 매년 제주도 내의 기악연주 중 50%는 관악연주가 차지할 정도로 제주 관악계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관악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을 중심으로 서양음악 단체 중 관악단체의 현실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논문은 2장으로 되어있으며 1장은 제주도의 관악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제주관악의 역사 (유입배경, 1950년대~1980년대, 1981년대~2000년대)를 시대별로 정리 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1930년대부터 2000년대 현대까지 이고 조사방법

은 선 연구자들의 논문, 연구보고서, 일간지, 세미나 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자료와 정보 등을 참고로 작성 하였다.

2장은 서양음악 단체 중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안한다. 연구내용 중 설문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의 인지도 및 바라는 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아울러 연구자가 관악단의 단원으로서의 경험을 가미하여 연구하였음을 밝혀둔다.



## II. 본론

### 1. 제주관악의 역사<sup>1)</sup>

#### 1) 유입배경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는 중앙의 문화권에서 가장 원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빈곤한 생활 속에서 문화적 후진성을 면치 못하여 왔다. 이러한 제주에 관악음악이 유입된 것은 여타 지방과 같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식 창가 교육이 시작되면서부터 일제가 군국주의 교육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에서였다. 1930년대 중반 이후 1945년 8·15해방 때까지 여러 소학교에서 관악대의 활동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마을에서의 신호나 학생들의 등·하교 시 집합신호와 행진, 훈련 등에 활용하는 정도였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도민들이 음악 등 예술 방면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은 어찌면 당연했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1942년에 설립된 애월 보통학교 관악대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8·15 해방과 미군의 주둔(본도의 경우 1945년), 도제 승격(1946) 등이 이루어지고, 일제 말기부터 이루어졌던 보통학교 중심의 관악활동은 제주초급중학교(현재의 제주중학교)에서 1947년 본도 최초의 9인조 중등학교 관악대를 창설하기에 이른다.

이후 이 관악대는 제주 읍을 중심으로 각종 의식행사와 4·3사건으로 혼란스러운 도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선무공작대 내의 절대적인 존재로 많은 활약을 하였다. 더불어 이 관악대를 중심으로 동척회사(제주주정회사의 전신, 1947년 말 소규모 직장 관악대 창설), 제주농업중학교 관악대(1949) 등의 악대가 활발한 활

1) 본 내용, 제주관악의 역사 (유입배경, 1950년대~1980년대, 1981년대~2000년대) 의 연구내용은 선 연구자들의 논문, 연구보고서, 일간지, 세미나 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자료와 정보 등을 참고하여 요약정리 한 것이다. 참고 문헌에서 밝히겠다.

동으로 음악적 불모지에서 도민들을 교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서양 음악을 바탕으로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음악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1950년대 후반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 2) 1960년대~1980년대

1960년대는 6·25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음악인들 스스로 창조적으로 음악활동을 모색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1962년 음악협회가 결성되고 점차 활동의 폭을 넓혀 가면서 제주예술제와 한라문화제(1962년 제주예술제로 출범하였으나 1965년부터 한라문화제로 개칭되었고 2002년 제41회부터 탐라문화제로 개칭됨) 등에 해마다 참여하며 자주적으로 음악의 수준을 높여 나갔다. 같은 해에 조직된 탐라합창단, 1963, 1964년 두 차례에 걸친 안익태 초청공연 등 종전과 다른 자생적 활동이 이 시기 본도 음악인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관악 활동은 50년대 후반부터 약 10여 년 간 오현고등학교 관악대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60년대 중반에 이르러 여러 학교악대가 창설되면서 본도의 관악은 그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1964년에는 효돈중학교에, 또 이와 비슷한 시기에 중문중학교에, 1966년에는 서귀중학교에 관악대가 창설되어 관악을 통한 정서교육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많은 관악인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1967년에는 세화고등학교에, 1968년에는 제주여자고등학교 교악대가 창설, 발대식을 가졌다.

1970년대는 음악활동을 기반으로 각 분야마다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시기이다. 음악인 혹은 음악 동호인들이 여러 기관의 후원으로 연주회 개최하거나 국내의 저명 음악인, 단체들을 초청하여 연주회를 열었고 음악이 대중 속에 깊이 파고들었다. 특히 학교 음악을 중심의 경연대회와 예술제 형식의 특색 있는 음악회가 마련되기 시작하면서 저변확대가 왕성히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관악활동으로는 제주제일고등학교 교악대가 창설(1971)된 것을 시작으로 제주상업고등학교, 남주고등학교 및 영진보육원 등에 새로운 관악대가 창설되고, 음악의 저변확대가 왕성하게 이루어져 전반적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음악활동이

전개되었다. 또 관악대 지도자들의 조직체인 한국관악대지도자회의 결성(1973)은 관악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다주었다. 또한 오현고등학교 교악대의 도 외 경연대회에서의 좋은 성과와 서귀중학교 교악대의 진주 개천예술제에서의 우승 등은 제주도 관악의 위상을 도외에 과시한 또 하나의 쾌거였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에 들어 여러 원인으로 관악활동은 시련을 겪게 되는데, 6개교의 학교악대가 활동을 중단하거나 침체되어 갔다. 그러나 발전된 사회적 여건으로 음악인들은 국내외의 관악인 및 음악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였으며, 이들이 지도, 배출한 관악도들은 국내의 여러 음악대학에 진학한 후 전문 관악인으로 성장하여 저명한 연주단체나 교육일선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 3) 1980년대~2000년대

이 시대는 제주도의 관악계를 비롯한 음악계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시대이다. 그 예로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1981년도에 제주대학교 사범대학내의 음악교육과가 신설된 것이고, 둘째로는 1995년도부터 개최되어 온 제주국제관악제이며, 셋째로는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이 창단이다.

첫 번째로 중등학교 음악담당교사를 배출을 목적으로 1981년 제주대학교에 사범대학 소속의 음악교육과로 신설된 것이다. 이후 1987년도에 인문대학 음악학과로 개편되었고 1997년도에는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개설, 2005학년도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을 개설하여 전문음악가 양성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였다. 그리고 2009년에는 예술학부로 개편되어 초대 예술학부장에 김인규 교수가 임명되었다. 제주대학교의 초대 관악 전임 고이선문 교수는 제주에서 중등음악교사 교편을 잡고 있던 중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로 임용되었고, 제주지역의 교향악시대를 여는데 앞장섰다. 또한 그는 제주의 젊은 음악인들을 규합해 도내 첫 기성연주단체인 탐라합주단을 창단해 활동했고, 이어 탐라 합주단을 시립화 하였다. 1985년에 교향악단 체제로 전환, 제주도에 첫 교향악단인 현 제주시립교향악단을 창단, 초대 상임지휘자를 맡기도 했다. 이후 제주시립교향악단을 이끌고 제

주도에서 처음으로 ‘교향악축제’에도 참가하였다. 그리고 이선문 교수는 1997년 12월4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1987년도에는 제주대학교 관악 전공 학생들로 이루어진 제주대학교 관악연구부가 제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다.

2004년에는 관악 전임 교수로 허대식 교수가 임용 된다. 허대식 교수가 임용된 후 초창기의 솔로 및 앙상블과 합주를 혼합한 정기연주회에서 합주 위주의 정기 연주회와 앙상블 위주의 실내악 연주회를 분리해 개최하였고, 관악연구부의 명칭을 제주대학교 윈드심포니로 개명 하였다. 제주대학교 윈드 심포니는 이렇게 매년 정기연주회, 실내악의 밤,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관악제에 참가 하는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통하여 내실 있는 연주력 향상과 정통적인 관악 레퍼토리 연주에 힘쓰고 있다. 또한 2004년 아시아·태평양 관악제 참가, 전국대학 심포닉 밴드 가을축제(2006, 2007) 참가 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 전국대학 심포닉 밴드 수준 높은 연주로 청중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런 제주대학교 관악연구부 출신이 제주도내의 교향악단, 관악단, 민간단체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중등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제주대학교의 음악학과가 제주음악계 발전에 큰 기반이 되었다.

두 번째로 1995년도에 제주도 관악 음악계에 가장 큰 축제인 제주국제관악제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가 개최된다. 제주국제관악제는 제주 관악인들의 열정과 노력에 의해 1995년부터 해마다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열리고 있다. 1998년에는 일본, 대만, 독일, 한국에서 참가한 소규모의 전문 앙상블 축제를 마련했고, 대중적 호응이 높고 축제성의 강한 홀수 해의 밴드축제와 병행하여 전문성에 초점을 맞춘 짝수 해의 앙상블축제가 시작되었다. 1999년 제4회 때부터 2006년 제11회 까지 제주시와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2007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2000년부터 짝수 해에는 앙상블축제와 함께 국제관악경연을 마련했고, 이 경연은 세계의 젊은 관악인들의 음악적 의욕을 높이고 우정을 나누기 위한 것 이였다. 제주국제관악제와 더불어 2004년에는 제13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 2006년에는 세계마칭쇼밴드챔피언십대회가 개최되어 서로의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제주국제관악제

가 세계적으로 제도약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 제주국제관악제의 목표는 제주도민의 문화적 자긍심과 연대감을 고취, 음악의 하모니로서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세계화, 관악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고루 추구하는 세계적인 관악축제, 국제 문화교류와 우의 증진에 있다.

이런 활동의 결과물로 제주국제관악콩쿠르가 유네스코 산하기구인 세계국제음악콩쿠르연맹(WFIMC-World Federation of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s)에 공식 회원으로 가입됐다. 세계국제음악콩쿠르 연맹에는 러시아 차이콥스키 콩쿠르, 폴란드 쇼팽 피아노 콩쿠르 등 전 세계 120여 개 콩쿠르가 가입돼 있다. WFIMC는 2009년 9월 17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총회에서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가 신청한 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과반 수 이상의 다국적 심사위원 선임, 한 지역에서 2회 이상 콩쿠르 개최, 오케스트라와의 협주곡 심사로 진행하는 결선 방식 등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한다. 국내에서 WFIMC 회원으로 가입된 콩쿠르는 통영국제음악제 사무국이 주최하는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경남국제음악콩쿠르에서 개칭)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번 멜버른 총회에서 제주국제관악제와 함께 서울국제음악콩쿠르가 함께 회원으로 가입되어 한국에는 WFIMC가 인정한 국제 콩쿠르가 3개이다. WFIMC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수준높은 음악인들의 참가가 예상되는 등 콩쿠르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제주국제관악콩쿠르에서 1, 2위에 입상하면 병역법에 따라 공익근무로 대체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국제관악콩쿠르는 제주국제관악제 사무국 주최로 매 2년마다 금관악기 7개 부문(Horn, Trumpet, Tenor Trombone, Bass Trombone, Euphonium, Tuba, 금관 5중주 등)에서 실력을 겨룬다.

세 번째는 전문 관악 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의 창단이다. 관악단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논제이므로 다음 장에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 2.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의 역사 및 발전방안

### 1)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의 역사 및 현황

#### (1)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의 역사

1997년 3월 7일 서귀포지역 관악연주자들을 중심으로 연습하던 단체가 서귀포 관악합주단(양경식 지휘)이라는 이름으로 창단 되었다. 이는 서귀포지역에 생긴 최초의 기성 기악연주단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서귀포관악합주단은 창단 이후 1년 동안 '97 제주국제관악제에 참가하는 것을 비롯하여 천지연 야외공연장 개막연주회(4. 28), '97 한 여름밤의 해변축제(7. 17), 서귀포 칠십리축제 관악의 향연(9. 27), 제36회 한라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서귀포시예술축제 관악제(10. 4), 바람과 광파르의 향연(10. 7), 서귀포시예술축제 음악제(10. 11), 제1회 서귀포문화제(12. 21) 등에 출연하였고, 자체 기획행사로 서귀포사랑음악회를 마련하여 주공아파트 광장, 천지연 야외공연장, 외돌개 주차장 등을 순회하며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였다. 이 단체는 창단 후 제주도의 새로운 연주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30여 회의 각종 연주 및 행사를 통하여 된다. 서귀포관악합주단의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서귀포시에서는 이 단체의 시립예술단으로서의 활동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고, 기존의 서귀포시립합창단에 서귀포관악합주단을 흡수하여 서귀포시립예술단으로의 창단을 구상하게 된다.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고 지역사회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21세기 관광산업 개발을 위한 전략으로서 서귀포시립관악단 창단을 정책으로 결정(1997. 10. 13)하게 되었다. 그래서 같은 해 서귀포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를 제정(서귀포시조례 제914호/1997. 12. 31)하고 동 시행규칙을 공포(1997. 12. 31)하였으며, 예술단 운영위원회를 구성(1998. 1. 10)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예술단의 운영 방향을 협의(1998. 1. 17)한 후 지휘자를 위촉(1998. 1. 20)하여 28명의 단원 구성을 완료하고 동 예술단 복무규정을 발령(1998. 2. 2)하

여 한국관악협회 박종완 회장이 배석한 가운데 창단식 및 기념연주회를 개최 (1998. 2. 6)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관악단인 서귀포시립 관악단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서귀포시립관악단의 창단은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우리나라 최초였으며, 연주단체 운영을 희망하는 전국의 중소도시에 파급효과가 컸었고, 전국의 관악인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중앙일보에서는 창단 후 첫 번째 열린 정기연주회에 대한 기사를 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25일 서귀포 학생문화원.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과 함께 국내 최초의 시립관악단의 출범을 알리는 힘찬 '팡파르'가 울려 퍼졌다.

... 中 略 ...

이번 창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최초의 관악단이라는 점에서 한국 관악사(管樂史)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다.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시립교향악단이 없는 다른 중소도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중앙일보, 1998년 3월 31일 >

관악의 특성을 살린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권을 신장시켜 줌은 물론 문화와 관광이 접목된 자랑스러운 명물로서 연주단체 운영을 희망하는 전국의 중소도시에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게 되었다.

서귀포시립관악단은 창단 후 해마다 다양한 연주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수권을 신장시켜줌과 동시에 서귀포를 대표하는 문화 사절단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2000년 3월에는 서귀포에 시립예술단이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이 악단의 독자적인 이름을 내걸고 해외 연주여행을 나서서 일본 구지카와시 시민 예술극장 개관 5주년 기념 국제무대예술교류사업 초청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다.

이날의 연주에 대해 오끼나와 타임즈는 '박력 있는 연주로 800여 명의 관객들을 매료시켰다'고 보도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오끼나와 타임즈, 2000년 3월 18일

그리고 2001년 7월에는 대구광역시 북구문화예술회관의 초청연주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2002년 8월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구립관악단으로 창단된 인천광역시 연수구립관악과의 합동연주를 가졌으며, 2003년 10월에는 인천광역시 음악협회가 마련한 월미국제음악제 초청에 초청을 받아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2004년 7월에는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 마련한 제5회 전국 우수관악단 초청연주회에 초청 받아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연주를 하여 호평을 받는 등 대외적인 활동에서도 서귀포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제주 관악의 위

상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서귀포시립관악단은 국내·외 초청공연과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통하여 제주를 대표하는 관악 전문 연주 단체로서 제주관악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 관악단의 탄생은 우리나라 관악 100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것이다.

그 후 제주도는 지난 1948년 도제 이후 59년간 이어져온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안”을 공포하고 2006년 국회를 통과 2006년 7월 1일부터 자치권을 행사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로 거듭났다. 종전의 제주도와 4개시, 군을 폐지,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와 2개의 행정시로 개편하였다. 그리하여 종전의 2개의 시에서 운영되었던 제주시립교향악단, 제주시립합창단, 서귀포시립관악단, 서귀포 시립합창단이 도립 예술단으로 통합되어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 제주도립제주합창단, 제주도립서귀포관악단, 제주도립서귀포합창단으로 통합되었다. 하지만 2009년 11월 현재 아직 명칭만 통합되었을 뿐 실질적인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2)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의 현황<sup>2)</sup>

현 제주특별자치도립관악단의 현재 지휘자 1명, 트레이너 1명과 단원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임단원 27명, 비상임 단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다. 전체 40명의 단원 중 1/3정도가 이 비상임 단원인 것이다. 지자체 소속의 전문연주 단체가 전 단원이 상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예산확보 및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으로 전단원 상임화 및 단원 및 행정직원 체계 즉 사무국 신설 및 수석, 부수석, 총무 등의 체계가 잡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주회는 매년 정기연주회 3회-4회, 기획연주회 27회-30회, 초청연주회 8회-10회 등 40회가 넘는 연주를 소화해 내고 있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연주단체이다. 1998년도부터 2009년 11월 현재까지 공연 실적을 표로 나타내었다.

2) 2009년 11월 까지를 기준으로 함.

<표 1>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 공연실적

연도	기획 연주	정기연주	의식행사	초청연주	총
1998	3	2	13	16/3 (특별연주)	37
1999	15	4	10	14	33
2000	13	1	6	24	44
2001	10	2	5	25	42
2002	4	3	6	13	26
2003	2	1	4	16	23
2004	2	2	2	13	19
2005	6	4	4	14	28
2006	5	5	4	16	30
2007	9	4	4	21	38
2008	27	4	2	11	44
2009	19	2	8	20	49
합계	115	34	68	203	413

이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은 정기연주회 외에 서귀포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 문화 소외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연주회 등 여러 가지 기획연주, 초청연주, 관광객을 위한 연주 등 많은 연주를 소화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서귀포에 전문 연주단체가 연주를 할 수 있는 음악전용 연주홀이 없는 것이다.

## 2) 발전방안

### (1) 인지도 확산

모든 시 자체를 대표하는 교향악단은 모든 시민들의 의식 속에 존재감이 각인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도 서귀포를 대표하는 음악단체이다. 그러나 서귀포의 시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이 서귀포를 대표하는 지자체 소속의 전문 음악단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의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의 인지도 및 바라는 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했다.

#### 가.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귀포지역을 중심으로 무작위 설문 조사를 통하여 조사 하였다.

<표 2>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단위: 부)

	배부된 수	회수된 수	회수율(%)
합계	300	276	90%

#### 나. 설문지 분석

(기초조사)

<표 3> 성별

	구분	응답자	비율(%)
성별	남	123	45.5
	여	147	54.5
	합계	270	100

<표 3>에서 보듯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의 성별은 남자 45.5%, 여자 54.5%로 여자가 더 많았다.

<표 4> 연령층

구분		응답 수	비율(%)
연령층	초·중 ·고등학생	155	57.4
	20대	72	26.7
	30-40대	28	10.3
	50대	7	2.6
	60대	5	1.9
	70대 이후	3	1.1
	합계	270	100

<표4>에서 보듯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은 초·중·고등학생이 57.4%, 20대 26.7%, 30-40대 10.3%, 50대 2.6%, 60대 1.9%, 70대 이후 1.1%로 초·중·고등학생이 가장 많았다.

<표 5> 거주 지역

구분		응답자	비율(%)
거주지역	서귀포시	189	70
	제주시	81	30
	합계	270	100

<표5>에서 보듯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 중 서귀포시 시민 70%, 제주시 시민 30%로 서귀포 시민이 많았다.

(인지도 및 바라는 점)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6>에서 보듯이 '알고 있다' 53.3%, '모른다' 가 46.7%로 나타나 서귀포 내 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 관악단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표 6> 인지도

질문내용	응답	응답자	비율(%)
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관악단을 알고계십니까?	① 안다.	144	53.3
	② 모른다.	126	46.7
	합계	270	100

만약 4번 문항에서 ② 모른다. 를 선택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오.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7>에서 보듯이 '관악단의 홍보부족' 42.1%, '관악단을 모른다' 30.2%, '음악에 관심이 없다' 17.5%, '들어본 적이 없다' 6.3% , 기타 3.9%로 관악단의 홍보부족이 많은 의견이 나왔다. 관악단을 모른다는 대답이 30.2%로 관현악단은 알지만 관악단은 들어보지 못했다는 대답도 많이 나왔다. 다른 지자체에 소속되어있는 전문음악단체로는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보편적이다. 전국최초의 지자체 소속의 관악단으로 창단된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이 교향악단과는 다른 편성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지자체 소속의 연주단체라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표 7> '②모른다'의 이유

질문내용	응답	응답자	비율(%)
5.만약 4번 문항에서② 모른다.를 선택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관악단의 홍보부족	53	42.1
	관악단을 모른다.	38	30.2
	음악에 관심이 없다.	22	17.5
	들어본 적이 없다.	8	6.3
	기타	5	3.9
	합계	126	100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을 알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8>에서 보듯이 '연주회를 보고' 27.8%, '친구·가족 등의 인맥으로' 47.2%, '홍보물을 보고' 13.2%, 기타 11.8%로 친구·가족 등의 인맥으로 알게 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다. 전문연주단체가 연주회를 통해 알려졌다고보다 친구·가족 등의 인맥으로 홍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표 8> 알게 된 경위

질문내용	응답	응답자	비율(%)
6.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을 알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①연주회를 보고	40	27.8
	②친구, 가족 등의 인맥으로	68	47.2
	③홍보물을 보고	19	13.2
	④기타	17	11.8
	합계	144	100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 관악단의 연주를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 9>에서 보듯이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을 알고 있다는 144명 중 '연주를 본 적이 있다' 68.1%, '본 적이 없다' 31.9%로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을 알고는 있지만 연주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31.9%로 나타났다.

<표 9> 연주회 관람여부

질문내용	응답	응답자	비율(%)
7.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 관악단의 연주를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98	68.1
	② 없다.	46	31.9
	합계	144	100

만약 7번 문항에서 ②없다. 를 선택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오.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10>에서 보듯이 '연주회가 언제인지를 몰랐다' 54.3%, '음악에 관심이 없다' 30.5%, 기타 의견이 15.2%로 '연주회가 언제인지를 몰랐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제주특별자치도립관악단에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주회가 언제인지를 몰라서 연주회에 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홍보 부족이다. 지자체 전문 연주단체가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주회에 관객을 동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표 10> '②없다.' 선택이유

질문내용	응답	응답자	비율(%)
5. 만약 7번 문항에서 '②없다'를 선택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오.	연주회가 언제인지를 몰랐다.	25	54.3
	음악에 관심이 없다.	14	30.5
	기타	7	15.2
	합계	46	100

일 년 중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연주회 관람 횟수는?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 11>에서 보듯이 '없다' 31.9%, '1회-2회' 47.2%, '3회-10회' 18.8%, '즐거본다' 2.1%로 연중 '1회-2회' 정도 관악단의 연주를 보는 관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연주회 관람 횟수

질문내용	응답	응답자	비율(%)
9. 일 년 중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연주회 관람 횟수는?	①없다.	46	31.9
	②1회-2회	68	47.2
	③3회-10회	27	18.8
	④즐거본다.	3	2.1
	합계	144	100

연주 관람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12>에서 보듯이 홍보 프로그램을 받았다. 23.6%, 음악에 관심이 있었다.13.8%, 연주자와의 친분 54.3%, 기타 8.3%로 연주자와의 친분으로 으로 연주회에 오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반면 홍보 프로그램을 받아서 연주에 온 경우는 23.6%로 연주회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들어났다.

<표 12> 연주관람 동기

질문내용	응답	응답자	비율(%)
10. 연주 관람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①홍보 프로그램을 받았다.	34	23.6
	②음악에 관심이 있었다.	20	13.8
	③연주자와의 친분	78	54.3
	④기타	12	8.3
	합계	144	100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 관악단의 홍보 프로그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13>에서 보듯이 '있다' 36.8%, '없다' 63.2%로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을 알고 있는 144명중 반 이상이 홍보 프로그램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주회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연주회에 관객동원은 불가능 해 보인다.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기획과 홍보를 해결할 행정 전문의 도입이 시급하다.

<표 13> 홍보프로그램 열람여부

질문내용	응답	응답자	비율(%)
11.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 관악단의 홍보 프로그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53	36.8
	② 없다.	91	63.2
	합계	144	100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에 바라는 점은? 이라는 질문에 다음 같은 결과가 나왔다.

- 홍보방법에 대하여 - TV홍보 등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 알려 주세요.
  - 연주날짜를 많이 홍보해주세요.
  - 홍보프로그램을 많이 배포해 주세요.
- 연주에 대하여 - 관객들이 이해하기 쉬운 음악을 연주해주세요.
  - 여러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연주해주세요.
  - 듣기 편안한 곡을 연주해 주세요.
- 기타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에게 바라는 점에서 가장 많은 답변으로 홍보방법에서는 TV 등 많은 매체를 통한 홍보가 가장 많이 나왔고, 연주에 대해서는 관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곡, 여러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연주해 주기를 바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에게 제주특별자치도립관악단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주의 홍보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소속의 전문연주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이 시민들에게 자랑거리이며, 문화콘텐츠로 인식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홍보 체제가 잡혀야 한다. 홈페이지구축, CD 제작, 미디어매체를 통한 홍보 연주, 전국 순회연주, 국내외 전문 관악 연주단체와의 교류연주 등을 들 수 있다.

## (2) 사무국 도입

제주특별자치도립관악단은 관에서 운영하는 전문 예술 단체이다. 관에서 운영하는 전문 예술단체가 운영되려면 연주를 기획하고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 단체 안에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 현 실정은 단무장 직급의 단원이 연주 기획 및 홍보와 모든 행정 업무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은 일 년에 40회가 넘는 연주를 있다. 이 모든 연주를 소화하기 위해서 사무국 직원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서 행정 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있는 서울 시향의 조직을 살펴보겠다.<표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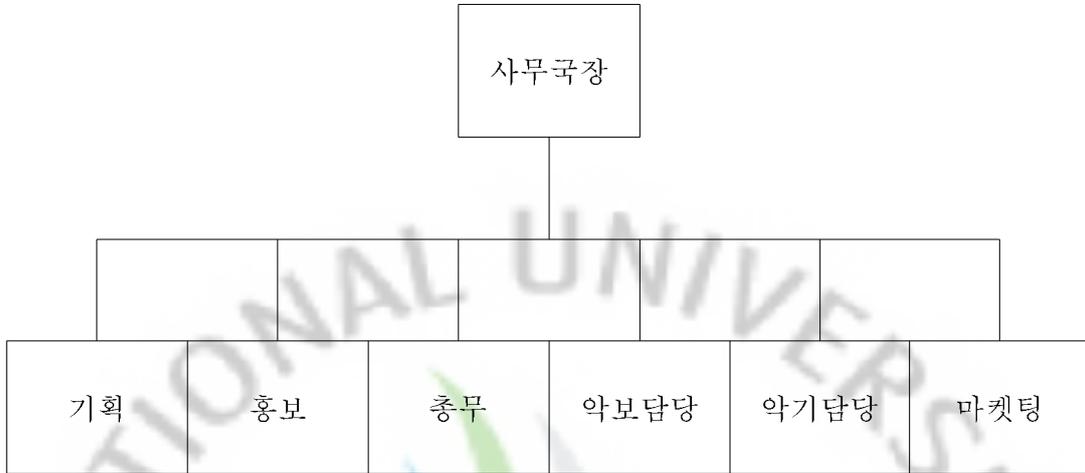
<표 14> 서울시향의 조직도



<표 15>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 수 현황

부서	경영 본부장	공연 기획팀	문화 사업팀	홍보 마케팅 팀	영업 관리팀	예술 감독	악보	무대 감독	계
인원	1	3	3	4	6	1	2	1	20

<표 16> 대전시향 조직도



<표 17> 대전시향 사무국 직원 수 현황

부서	사무국장	기획	홍보	총무	악보담당	악기담당	마케팅	계
인원	1	2	1	1	1	1	1	8

서울시향, 대전시향의 경우에는 연주자가 아닌 행정 전문가가 연주의 기획부터 홍보까지 담당한다. 경영본부장, 공연 기획, 문화사업, 홍보 마케팅팀, 영업관리팀으로 사무를 세분화 하여 행정전문가들이 업무를 맡고 있다. 그리고 교향악단은 사무국과는 별개로 연주회만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립관악단과 비슷한 비상임 체제에서 2009년 7월에 전 단원 상임체제로 전환된 마산시립예술단의 조직도이다. 비상임체제의 현 제주특별자치도립관악단이 전 단원 상임화가 되고, 사무국이 설치되었을 때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단체이다.

<표 18> 마산시향 조직도



<표 19> 마산시향 사무국 직원 수 현황

부서	기획운영 실장	운영 팀장	기획1	기획2	악보1	악보2	악기1	계
인원	1	1	1	1	1	1	1	7

<표 20> 마산시립예술단 사무국 조직별 업무내용

직책	업무내용
기획운영실장	예술단 총괄운영 예술단의 연간사업 기획운영 기획운영실 단원 및 단원 복무관리(근무평정 등) 단체별 행정프로그램 관리 대외업무 전반
운영팀장	공연기획 및 홍보업무 총괄 연주진행 및 총괄, 연습 및 공연일정 총괄진행, 단원출결 관리 및 업무지원 비품관리 총괄, 아트센터 업무협의 지출서류 및 정산서 관리, 각종 문서관리, 신상카드 작성 및 관리, 각종회의 자료 및 회의록 정리, 비품 관리, 각종수당 관리, 공연지원 및 홍보 해외연주 섭외 및 기획, 보도자료 제작관리
기획1 (교향악단)	기획1과 동일한 업무
기획2 (합창단)	기획1과 동일한 업무
악보1(교향악단)	편곡 및 악보사보, 악보제작 및 관리 홍보물 제작 및 발송, 정기회원관리 MR/AR 제작관리, 공연홍보 예술단 공연지원(촬영 및 진행 등)
악보2(합창단)	악보1과 동일한 업무
악기1	악기 관리 및 유지수선, 공연 대관 및 공연신고, 홍보자료 제작지원 공연홍보, 공연지원 전반

다음으로 같은 제주도립 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교향악단의 상황을 살펴 보겠다. <표 21>

<표 21>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교향악단의 조직도



<표 22> 제주시향 사무국 직원 수 현황

구분	단무장	행정 및 기획	홍보	총원
인원	1	1	1	3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과 같은 도립 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교향악단의 현황을 살펴보면 사무국 직원은 3명으로 단무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행정 및 기획에 한명 홍보 담당에 한명의 직원이 있다. 나머지 악기담당, 악보 담당 등은 모두 시향 단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은 사무국이 존재 하지 않는다. 사무국이 없는 상황에서 연주회를 개최하고 홍보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하루 빨리 사무국이 도입되고 행정 전문가가 사무를 담당하여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3) 상임화

현재 관악단의 가장 큰 문제는 단원의 구성이다. 2009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 관악단의 단원구성은 <표23>와 같다.

<표23>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 단원 현황

악 기	상임단원	비상임단원	계
Flute	3	2	5
Oboe	2	0	2
Bassoon	0	0	0
Bb Clarinet	7	1	8
Eb Alto Saxophone (Soprano Saxophone)	1	1	2
Bb Tenor Saxophone	0	1	1
Eb Baritone Saxophone	1	0	1
French Horn	2	1	3
Bb Cornet(Eb Cornet)	1	1	2
Bb Trumpet	2	1	3
Trombone	2	2	4
Euphonium(Baritone)	1	0	1
Tuba(Eb Tuba)	1	1	2
Harp(Piano)	0	1	1
Timpani	1	0	1
Percussion	2	1	3
편곡	1	0	1
계	27	13	40

2009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 단원의 구성을 보면 지휘자 1명, 트레이너 1명, 상임단원 27명, 비상임 단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다. 상임단원 비율이 67.5%, 비상임 단원 비율이 32.5%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40명의 단원 중 1/3 정도가 이 비상임 단원인 것이다.

상임단원들은 매일 오전 출근하여 서로의 호흡을 맞추며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비상임들은 일주일에 두 번 저녁 합주에서 호흡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상임단원과 비상임 단원간의 연습시간 조율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그래서 전 단원 상임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산확보 및 매년 구체적인 단원 확보 계획 등 전문단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4) 악기 편성 균등화

요즘 시기에 연주되는 관악단의 악기의 편성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립관악단의 악기편성이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과 다른 관악단의 편성을 비교해보겠다.

<표 24> 관악 연주단체 편성 현황

악 기 \ 연주단체	A	B	C	D	E	F	G	H
Piccolo	1	1	1	1	1	2	1	1
Flute	4	3	3	2	3	2	5	2
Oboe	1	1	3	2	2	2	2	2
English Horn	1	0	1	1	1	1	1	1
Bassoon	0	1	3	3	3	3	4	3
Eb Clarinet	1	1	1	1	1	1	1	1
Bb Clarinet	5	7	12	13	13	7	9	8
Eb Alto Clarinet	0	0	1	1	1	1	1	1
Bb Bass Clarinet	1	1	1	1	1	1	1	1
Eb Alto Saxophone	2	2	3	3	3	4	2	2
Bb Tenor Saxophone	1	1	1	1	1	1	1	1
Eb Baritone Saxophone	1	1	2	1	1	1	1	1
French horn	3	5	6	8	5	6	5	5
Trumpet / Cornet	5	6	9	10	9	6	6	7
Trombone	3	4	6	7	3	4	2	3
Bass Trombone	1	1	1	1	1	1	1	1
Euphonium(Baritone)	1	1	2	3	2	1	2	2
Tuba	2	2	4	4	4	2	3	2
String Bass	0	1	5	4	1	1	1	1
Harp(Piano)	1	0	3	0	1	2	3	2
Timpani	1	1	1	1	1	1	1	1
Percussion	3	3	6	5	5	4	6	4
합계	38	43	75	73	63	54	59	52

- A: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 (비상임 단원까지 포함한 숫자임)
- B: 인천연수구립관악단
- C: United States Air Force Band
- D: United States Army Field Band
- E: United States Marine Band
- F: Eastman Wind Ensemble
- G: Hong Kong Wind Philharmonia
- H: Dallas Wind Symphony

관악단의 단체 특성상 연주되어지는 작품들은 관현악곡을 관악편성으로 편곡한 작품이거나 현대 작곡가들의 작품이 대부분이다. 현대에 작곡되어지고 있는 작품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조성과 화성을 사용하며, 특히 관악합주를 위하여 작곡되는 곡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사운드로 관악기의 매력을 발산 할 수 있는 대규모 편성의 작품들이 많다. 연주단체들이 이러한 현대 곡을 연주하기 위하여 편성이 확대 되고 있다. <표 19>에서 보듯이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도 Oboe, Bassoon, Clarinet, Horn, Trumpet, Euphonium, String Bass 그리고 타악기 연주자 확충과 편성이 확대 되어져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립관악단의 편성 중 가장 보완 되어야 할 부분은 Clarinet주자, Bassoon주자, 금관악기주자, 타악기주자 편성이 확대 되어야 한다. 관악합주에 필요한 기초적인 파트는 반드시 확충되어야 한다.

서귀포시립관악단 에서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이 단체가 명칭만 바뀐 단체가 아닌 독립 단체의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상임지휘자 운영체제와 전 파트의 연주자 확보, 전 단원 상임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Ⅲ. 결론

제주도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정보의 고립 등으로 제주도내의 문화적 활동이 제대로 조명 되지 못해 왔다. 195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최근의 관악의 역사를 정리하였고, 특히 1970년대-현대 시기에 제주대학교 음악학과의 개설, 국제관악제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 창립 등을 조사하여 제주도에서도 활발한 문화적 활동이 있었음을 재조명 하였다.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관악단인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은 관악의 특성을 살린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권을 신장시켜 줄은 물론 문화와 관광이 접목된 자랑스러운 명물로서 연주단체 운영을 희망하는 전국의 중소도시에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 하고 있으며, 국내 · 외 초청공연과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통하여 제주를 대표하는 관악 전문 연주 단체로서 제주관악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

이 단체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인지도 부족과 홍보 부족이 큰 문제로 나타났다. 아래와 같이 4가지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전 단원의 상임화 이다. 상임단원과 비상임 단원간의 연습시간 조율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었다. 지자체 에서 운영하는 전문 음악단체에서 상임과 비상임 단원체제로 연주활동을 하는 것은 전문 연주 단체로 활동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전 단원 상임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 져야 한다.

두 번째로 악기편성의 균등화이다. 관악합주에 필요한 기초적인 파트는 반드시 확충되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립관악단의 편성 중 가장 보완 되어야 할 부분은 Clarinet주자, Bassoon주자, 금관악기주자, 타악기주자 편성이 확대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사무국의 도입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은 사무국이 존재 하지 않는다. 사무국이 없는 상황에서 연주회를 개최하고 홍보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연주홍보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하루 빨리 사무국이 도입되고 행정 전문가가 사무를 담당하여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인지도 확산이다.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은 지자체를 대표하는 전문 음악 단체이다. 그러나 다른 시립교향악단처럼 시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이 지자체소속의 그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임을 알고 있지 못한다.

지자체 소속의 전문연주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이 시민들에게 자랑거리이며, 문화콘텐츠로 인식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홍보 체제가 잡혀야 한다. 홈페이지구축, CD 제작, 미디어매체를 통한 홍보 연주, 전국 순회연주, 국내외 전문 관악 연주단체와의 교류연주 등을 들 수 있다.

서귀포시립관악단 에서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이 단체가 명칭만 바뀐 단체가 아닌 도립 단체의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 물질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자리 잡아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이 제주도를 대표하는 단체가 되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 1. 단 행 본

- 양경식, 남제주 음악,
- 양경식, 서귀포 시립관악단 운영백서, 2003
- 양경식, 제주국제관악제 개최로 인한 제주 음악문화의 변화, 2004
- 제주문화예술재단 계간지 "삶과 문화", 2006
- 제주예총, 제주문화예술백서, 제주 음악의 어제와 오늘, 1998

### 2. 논 문

- 김지혜, "한국의 관악 발전사와 제주의 관악 발전사에 대한 비교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김상미, "제주도 서양음악의 변천관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이영만, "濟州 音樂文化의 발전에 관한 考察 研究 : 濟州市立交響樂團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이선문, "濟州道 管樂의 變遷過程에 關한 調查 研究 : 學校 樂隊를 中心으로", 慶熙大學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 3. 신문기사

- 이장직, "제주국제관악콩쿠르, 세계국제음악콩쿠르연맹 가입", 중앙일보, 2009. 04. 25
- 임재영, "제주관악콩쿠르, 국제콩쿠르연맹에 가입", 동아일보, 2009. 04. 22

#### 4. 인터넷

-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 제주시립교향악단 <http://artjeju.or.kr/sirip2006/>
- 서울시향 홈페이지 <http://www.seoulphil.or.kr/>
- 대전시향 홈페이지 <http://www.dpo.or.kr/>
- 마산시향 홈페이지 <http://www.artmasan.kr/>
- 제주국제관악제 홈페이지 <http://www.jiwef.org/>
- Hong Kong Wind Philharmonia 홈페이지 <http://www.hkwp.org/>
- Dallas Wind Symphony 홈페이지 <http://www.dws.org/>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ner.com/>

#### 4. 기타문헌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5 제주문예 연감」, 2005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8 제주문예 연감」, 2008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제주문예 연감」, 2009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contemporary history of Jeju Wind Music and seeks development researching into a matter.

To achieve this, this study arranged contemporary history of Jeju Wind Music based on various data and information; papers of former researchers, reports, daily papers, seminar materials, internet homepages and so on.

And this study was researched centering around Jeju Provincial Seogwipo Wind Orchestra which makes the most activity with characteristic of Wind Music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t is the only Wind Orchestra which Local Government runs in whole country. So it works with a lot activity making the most of Wind Orchestra's characteristics. It, of course, extends cultural art enjoyment to local resident and proposes the model to small towns of whole country hoping to manage a performing group as a proud feature combined culture with tourism. Also it instills pride of Jeju Wind Orchestra into the people's mind as a wind music specializing performance group, representing Jeju through internal and external invitation performance, regular and visiting concert and so on.

To understand problems of this group, I surveyed citizens with the consequence that the lack of cognition and publicity was the major problems. Therefore, I would like to present four plans as below.

At first, all members should be permanent. Because the present Jeju Provincial Seogwipo Wind Orchestra is composed of 32.5% non-permanent members in all, permanent and non-permanent members can't help needing to tuning practice time. There are a lot of hardships in activity as a specializing performance group with the permanent and non-permanent system managed by Local Government. All members, therefore, should be

permanent as soon as possible.

Secondly, the musical instrument organization needs equality. Basic parts that need wind orchestra ensemble have to be expanded. The thing that organization of Jeju Provincial Seogwipo Wind Orchestra should be complemented is enlargement of Clarinetist, Bassoonist, Brass player and Percussionist.

The third is the introduction of executive office. There is no agency in Jeju Provincial Seogwipo Wind Orchestra now. In conditions where there isn't agency, it can't help having its limits to taking place the concerts and giving publicity to people. As you can see the result of survey, musical performance publicity is not being achieved. It has to introduce agency quickly and administration professional should take the charge of the affairs so that its system could be placed.

Finally, it is recognition dissemination. Jeju Provincial Seogwipo Wind Orchestra is musical specializing group. However, citizens don't know that Jeju Provincial Seogwipo Wind Orchestra is the representative region group belonging to Local Government like other Municipal Symphony Orchestra. To raise the recognition, first and foremost, the synthetical promotion has to be framed. If you promote that Jeju Provincial Seogwipo Wind Orchestra is musical specializing group belonging to Local Government and performs a lot more than 40 times every year, it will be a pride to citizens and occupy a position as another culture contents.

It has been changed from Seogwipo Municipal Wind Orchestra to Jeju Provincial Seogwipo Wind Orchestra. Therefore, it has to be set up the administrative, financial support and organized system in order to be not a group changing only the name but a provincial group having a system.

<부록>

설문지 결과 분석을 통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시간에도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의 인지도 조사를 위한 설문에 응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석사학위 논문 “제주관악의 현대사와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 중심으로 ”의 참고 자료로서 시민들의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의 인지도 및 바라는 점을 알기 위해 작성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오니 잘 읽어 보시고 끝까지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은 무기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제주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플루트전공  
나맑음

※1번~3번은 기초자료에 대한 조사입니다. 해당란에 V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연령층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 ① 초 · 중 · 고등학생    ② 20대    ③ 30-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후

3. 살고 계신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귀포시(지역:            )    ② 제주시(지역:            )



11.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 관악단의 연주 홍보프로그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 없다.

12.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에 바라는 점은?

홍보 방법에 대하여:

연주에 대하여:

기타 :

